

專門化 社會에 있어서의 獸醫師의 地位向上

姜 英 培*

東亞出版社에서 발행한 “原色 世界 大百科事典”에 찾아보면, 〈獸醫師〉를 “動物 특히 家畜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 경제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업과의 관련이 밀접하여 가축의 사육·번식·이용 등의 지도에도 임하고 있다. 수의사는 개인적으로 개업을 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 기초적인 연구나 교육에 임하기도 하고 家畜衛生研究所나 기타 국가기관에서 가축의 보건위생, 번식, 치료에 관한 연구나 행정에 종사하며, 또 도축의 검사, 수출입 동물의 검역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東亞 國語大辭典”에서 〈專門家〉를 찾아보면 “어떤 學科나 일을 오로지 研究하여 그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업인 〈獸醫師〉는 문자 그대로 〈專門職〉이며 우리 모두는 〈專門家〉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하든 現代社會는 專門化 社會이며, 이 時代에 요구되는 것은 고급의 기술과 두뇌를 소유한 〈專門家〉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대학 獸醫學科에 처음 입학하였던 20년전에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專門家이며 여러분이 선택한 獸醫學이라는 學門

*家畜衛生研究所

은 고급의 전문적 학문이므로 앞으로 5년 또는 10년만 지난 후에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고급의 專門 職業人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先進外國에 있어서의 獸醫學의 學門的 권위와 獸醫師의 社會的, 職業的 地位를 보아도 명약관화한 현실이다”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중 다분히 희망적인 설득에 감동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종종 관련단체 會長선거때나 우리 끼리끼리의 모임에서 出馬者의 所見발표나 각급 會長이나 機關長들의 新年辭 같은 데에서, 앞으로 우리 獸醫師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결심과 다짐에, 그것이 결국에는 수취인 미상의 부도수표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가슴부푼 기대를 가져보곤 했었습니다.

과연, 이 時代에 5천년 文化民族의 歷史를 자랑하며 學門을 숭상해 온 우리의 社會에서 우리들이 선택한 獸醫學의 學門的 專門性은 얼마만큼 인정받아 왔으며 우리들 獸醫師의 社會的 職業的 地位는 얼마만큼이나 向上되었나 우리들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거기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냉정히 정말 냉정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地位를 向上시킬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각오를 세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옛날의 〈쇠침장이〉 수의술에서 현재의 獸醫學(실제로는 西洋 獸醫學)으로 형태적 변신을 하게 된 것은 인정되며, 臨床 獸醫師중에는 그런대로 中等度 程度의 경제적 自立을 한 분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오늘날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獸醫學이 얼마만큼의 專門性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獸醫職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소득을 받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獸醫師의 地位向上 方案에 대하여 여러 선배제현들의 〈말씀〉과 〈구상〉 그리고 〈꿈〉이 있었겠지만 우선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수의사 면허시험제도와 전문수의사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수의사 면허시험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고시제도이며, 이러한 국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은 대학에서 정규 수의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또는 동등 이상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항간에 듣기에 금년도 수의사 국가고시는 다른 해에 비하여 어렵게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득점자에게는 포상할 계획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답안지 채점결과에 있어서는 불합격(낙방)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떤 과목에 있어서는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무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의 수의학 교육이 완벽하고 응시자 전원이 국가가 기대하는 專門職으로서의 獸醫師가 될 資質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면 다분히 希望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考試의 無用論까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反對로 出題問題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라면 資質이 빈약한 獸醫師의 數만 量産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獸醫師들의 資質마저도 의심받거나 평가절하를 받게 되는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獸醫師

의 地位向上을 위하여는 大學에서의 獸醫學 學門別 各 영역에 있어서의 高級化, 專門化도 必要하며 有能한 소수의 정예를 선발한다는 意味에서도 獸醫師 國家考試制度的 존재문제 또는 改善發展 문제는, 누구에게 책망을 돌리기에 앞서 심각하게 論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나라의 獸醫師 補修教育에 關하여도 재검토되어 줄 것을 바라며, 現行 우리나라의 大學教育 學制와 수업년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專門職業人으로서의 有能한 獸醫師를 養成해내기 위한 方案으로 大學院 教育의 內實化와 民間團體가 주도하는 專門獸醫師制度가 發展的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둘째, 獸醫師會의 組織과 운영 및 관련 學會 육성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獸醫師會는 大韓民國 獸醫師를 代表하는 機關이며, 法的으로는 獸醫師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民間團體로서의 社團法人이기 때문에 國家機關의 승인과 감독을 받고는 있으나 實際的으로는 政府組織은 아니며 더욱이 臨床 獸醫師만의 또는 特定된 獸醫師 集團만의 獸醫師會는 될 수 없습니다.

大韓獸醫師會는 우리들 大韓民國의 獸醫師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會員)들의 最高 代表機關이며 우리들이 선택한 獸醫學의 學門的 專門性을 유지, 발전시키고 獸醫業을 보호하며 獸醫師의 地位를 向上시켜야 할 公的 義務가 있습니다. 大韓獸醫師會가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會員인 우리 獸醫師들의 참여와 義務이행 또는 권익요구가 강력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따라서 現在의 組織구성과 운영체계 문제, 各 支部와 會員문제, 會費징수와 납부에 관한 문제 등이 意味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獸醫學에 관련된 各 專門領域別 學會活動에 관하여는 各 學會마다 설립목적과 정관 및 운영체계와 소속회원이 상이하겠지만, 필자의 意見으로는 醫學界와 같이 醫師會와 醫學機關, 學術團體들이 통합하여 最高協議體인 〈大韓醫學

協會)를 결성하고 각 시·도 및 地方에 <醫師會>가 있는 한편 醫學關聯 各 學術團體들이 專門領域別로 分科되어 있으면서도 <大韓醫學協會>의 산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大韓獸醫學會>도 獸醫學에 關聯된 各 學術團體를 통합·흡수하여 <大韓獸醫學協會>를 만들고 그 산하에 각 시·도支會 및 各 學會 그리고 各 專門領域別 學會 또는 研究會로 改善·發展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셋째, 政府組織內 獸醫業務機關의 機能과 改善방안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現在 우리나라의 政府組織중 獸醫業務機關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農林水産部 장관산하에 畜産局이 있고 그 산하에 家畜衛生課가 獸醫業務의 주무부서로 되어 있으며 本部 직속 산하기관으로 動物檢疫所가 있으며 本部와는 별도로 農村振興廳 산하기관으로 家畜衛生研究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一次産業인 農林水産부문중 畜産이 차지하는 比重을 볼 때 그리고 獸醫學이라는 專門性を 고려해 볼 때, 現在의 家畜衛生課는 당연히 獸醫局으로 승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動物檢疫所와 家畜衛生研究所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國立獸醫研究院>으로 격상 조정되고 그 산하에 國內 家畜疾病의 調査와 研究를 맡는 各 專門부서와 畜産物 및 動物用 醫藥品에 대한 檢査와 檢定을 맡는 各 專門부서 그리고 獸醫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과 훈련을 맡는 各 專門부서, 海外 惡性傳染病 研究와 精密動物檢疫實驗을 맡는 專門부서로 구분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하여는 現行대로 動物檢疫機關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家畜衛生研究所가 本部로 흡수되는 農村振興廳내에는 기술보급국내에 家畜衛生指導課가 설치되고 산하기관인 畜産試驗場(現在는 家畜衛生研究官 1名 定員에 공석중임) 내에는 家畜衛生科를 신설하여 臨床 獸醫學 研究 및 畜舎와 牧野衛生 研究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本部 산하기관인 國立種畜院내에는 부속動物病院을 설

치하여 種畜의 臨床疾病管理 및 유전과 번식에 관련된 疾病管理를 專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편, 農林水産部 관련기관 이외에도, 國防部에 소속된 各軍의 獸醫장교들이 食品의 衛生檢査와 환경위생관리, 軍用動物의 疾病管理, 醫務行政이나 研究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실무책임자급 초급장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專門性を 살려 참모급 고급장교의 육성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保健社會部 산하에 소속된 獸醫師의 專門的 固有業務는 食品 특히 畜産食品과 水産食品에 대한 衛生管理에만 국한되지 않고 醫藥品의 安全性, 效能, 動物實驗 등과 環境 및 公衆保健(人獸共通傳染病管理 등), 衛生害虫管理 등 獸醫學의 學門的 專門性에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업무는 반드시 專門家인 獸醫師의 관리하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日本만 하더라도 農林水産省내에 소속된 獸醫師의 숫자보다 保健厚生省내에 소속된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地方行政組織內의 獸醫業務機關과 機能을 살펴봅시다.

現在, 우리나라의 地方組織은 아직까지는 地方自治制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地自制가 시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對應策도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現在 서울特別市에는 市·本廳에 家畜衛生係가 있으며 各 區廳의 衛生課나 産業課에 獸醫師가 배속되어 있으며(各 區廳마다 다있는 것은 아님), 保健環境研究所의 畜産物檢査部와 서울대공원에서 各 分野別 專門職種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울特別市는 比較的 獸醫業務 수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되지만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獸醫職 各 職級의 上向조정과 人員의 대폭 확충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직할시와 인천직할시 그리고 各 道에는 市·道 本廳에 獸醫係가 있고 산하기관으로 市·

道家畜衛生試驗所(地方에 따라서는 支所까지)가 설치되어 있는데(대구직할시는 아직까지는 기능이 미비된 상태이며 광주직할시에는 미설치된 상태),機關마다 人員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절감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기업축산의 규모, 가축사육두수의 증가, 축산물의 대량생산과 소비, 도축장 및 도계장등의 광역화설치와 시설현대화 등에 맞추어 地方行政組織내의 獸醫業務機關의 구조와 기능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各地域에 지정되어 있는 公獸醫에 대한 機能과 大우문제 또는 公獸醫制度 自體에 대한 存廢문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서울올림픽경기대회와 수의사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운동경기라고 하면 獸醫師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獸醫師의 專門性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나라의 獸醫師의 資質이나 專門性을 인정받지 못하면 당해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種目은 바로 <승마경기>이며, 지난번 바덴 바덴에서부터 서울올림픽개최가 결정될 때까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승마경기의 개최가능 여부를 놓고, 우리나라의 獸醫業務 실태에 관하여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아시아 경기대회 때에만 하더라도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의 동물검역소, 가축위생연구소 등 국가지원단체와 주무부서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의관,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수의분과위원회,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민간인 자원봉사 수의사와 수의대 학생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승마종목의 금메달 6개중 3개를 따내는 개가를 올릴 수 있도록 獸醫師로서의 專門性을 발휘한 바 있으나, 앞으로 내년(1988)에 개최될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올림픽경기 대회에는 승마종목 뿐만 아니라 근대 5종경기까지

獸醫師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는 공식적으로는 5급(사무관급) 상당의 수의관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獸醫담당부서의 4급(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상향조정과 인원의 증원배치, 또는 獸醫業務 독립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獸醫界 元老들에 대한 業界의 예우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들 獸醫界를 이 정도라도 이끌어 온 분들은 우리 業界의 元老들이며, 學界나 政界나 團體나 個人的으로 어렵고 힘들게 平生을 바쳐온 것은 비단 現存해 있는 元老 獸醫師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얼마가지 않아서 우리들도 그러한 世代에 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 獸醫師會 會員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大韓民國 獸醫學術院; The Korean Academy of Veterinary Science>을 만들어 獸醫界의 元老들을 모시도록 하고 그 분들의 學識과 技術과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 젊은 사람들이 理想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專門職業인 獸醫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후배들은 우리보다 더욱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경제학자로 유명한 그레삼은 말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無免許 獸醫師>와 <非專門家>들이 날뛰는 世上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잇몸잔치>일 뿐, 우리는 우리의 專門性을 살려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獸醫師의 地位와 권익을 보호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專門家>들의 <촛불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 世代가 우리의 專門性과 地位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는 우리들 스스로 역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獸醫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으며 다른 職業을 가진 친

구들에게는 자랑도 하고 獸醫學을 선택한 후배들에게는 격려도 해주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아들 亨遠이와 내딸 恩珠에게는 獸醫學을

선택하라는 말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社會가 專門化되지 못한 탓일까요?

Close-up/崔性昊 動藥組合 전무

조합경영합리화에 주력 動藥業界 난립에 큰 우려



崔性昊씨가 지난 3월 23일 韓國動物藥品工業協同組合 전무이사에 취임했다.

大韓獸醫師會 군진지부장 및 육군본부 수의병과장을 역임한 그는 「20여년간 獸醫界에 몸담고 일한 것을 바탕으로 動物藥品業界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취임 소감을 들려준다. 특히 과도기적 입장에 서있는 조합을 확고히 하려면 우선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는 또 動藥業界가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 수입도매업체, 대기업에 소속된 動藥업체 등으로 분리돼 있는데 대해 크게 우

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임기동안 이같은 문제에도 신경을 써 업계의 구심점을 모으는데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15억원을 유치, 원료의 공동구매사업을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이와함께 공동판매사업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그는 회원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정보를 제공, 리더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협업단지조성, 홍보물제작 등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의 설계를 들려준다.

오랜 세월 군대 생활을 거치면서도 성격은 온순하고 밝으며 업무처리에서도 모가 나지 않고 치밀한 면이 있으며 때로는 적극적이라는 평을 그의 주위 사람들로 부터 듣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61년에 졸업했으며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부인 李영자씨(43세)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경북 봉화 출신(49세).